

I. 상담실적

- 상담기간: 2025. 5. 21.(수) 07:00 ~ 22:00
- 상담건수: 667건

II. 주요의견 내용

○ 방송 호평(9명)

-프로그램명 : 「인간극장」 ‘장독대 앞 세 모녀’

-방송일시 : 2025. 5. 21.(수) 1TV (07:50-08:25)

세 모녀가 된장을 담그는 모습을 잘 봤다. 맛있게 보여서 구매도 하려고 한다.

○ 출연자 제언(1명)

-프로그램명 :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방송일시 : 2TV (일) (16:40-18:10)

해당 방송을 즐겨 보는 고등학생이다. 이 방송은 보스와 직원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패널들이 직접 비판하는 방식에 차별성이 있다. 그런데 보스들의 자아 성찰이라는 취지와 달리, 보스들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패널들도 비판의 날이 무디다. 이런 부분이 공익성을 저해한다고 생각한다. 보스들이 자신의 행동을 성찰할 수 있도록, 패널들이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지적과 비판이 있어야 할 것 같다.

III. 청원현황

- 신규청원
 - 70건.
-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
 - 없음.

※ 참고: KBS홈페이지->시청자권익센터->시청자청원(<http://petitions.kbs.co.kr>)

IV. 일일 상담내용

1. 상담실적 : 총 667건

○ 형태별 분류

전화	인터넷	우편·FAX	방문	ARS ¹⁾	계
356	44	-	-	267	667

○ 채널별 분류

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非채널	계
306	221	10	-	-	130	667

○ 내용별 분류

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
116	551	-	667

○ 분야별 분류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508	3	54	102	667

시청자 의견	문 의
<p>【편 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화극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속 방송 요청 ○ 「동물은 훌륭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속 방송 요청 <p>【보 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 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 요청 <p>【시사·교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극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 호평 <p>【연예·오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자 제언 ○ 「박원숙의 같이 삼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자 섭외 제언 <p>【라디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생클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곡 제언 	<p>【방 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시 내고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루베리’ 연락처 문의 26건 ○ 「2TV 생생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돼지갈비’ 연락처 문의 25건 ○ 「인간극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된장구매’ 연락처 문의 24건 ○ 「아침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자 제언’ 16건 ○ 「생생정보 스페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화요리 무한 리필’ 연락처 문의 12건 <p>【기 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시청」 문의 2건 ○ 「디지털 전환」 문의 1건 <p>【경 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문의 16건 ○ 「수신료」 문의 12건 ○ 「프로그램 구입」 문의 13건 ○ 「전화교환」 문의 9건 ○ 「주차」 문의 3건 외 1건 <p>【기 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전 문의사항 포함 102건

1) ARS 항목 상세내용: 제보, 홈페이지문의, 프로그램 구매문의,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

2. 프로그램별 의견

의견	세부내용
[편 성]	
후속 방송 요청	<p>○ 「명화극장」(1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9. 9. 17.~2014. 12. 26. (금) 1TV 방송. - 어렸을 때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봤던 영화들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그건 당시 KBS가 영화 선별을 잘했다는 뜻이다. KBS는 채널을 두 개나 가지고 있는데, 좋은 영화들을 잘 선별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면 좋겠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후속 방송 요청	<p>○ 「동물은 훌륭하다」(1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 11. 16.~2025. 3. 24. (월) 2TV 방송. (총 18부작) - 가족이 알레르기가 있어서 동물을 키울 수 없는 시청자이다. TV를 통해서라도 보고 싶은데, 해당 방송이 종영되어 외롭고 우울하다. 빨리 후속 방송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보 도]	
보도 요청	<p>○ 「KBS 뉴스」(1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TV - 요즘 배민이나 쿠팡 등에서 일하는 배달 종사자가 늘고 있다. 그런데 배민이나 쿠팡의 구조가 하청을 통해 배달 기사에게 임금을 지불한다. 하청업체 사장이 배달 기사들의 임금을 ‘먹튀’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지만,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고 임금 체불 정도로 끝나기에 악용하는 경우도 많다. KBS에서 이런 사례를 취재 후 공론화 시켜주었으면 한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의견	세부내용
[시사 · 교양]	
방송 호평	<p>○ 「인간극장」 ‘장독대 앞 세 모녀’(9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 5. 21.(수) 1TV (07:50-08:25) - 세 모녀가 된장을 담그는 모습을 잘 봤다. 맛있게 보여서 구매도 하려고 한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연예 · 오락]	
출연자 제언	<p>○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1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TV (일) (16:40-18:10) - 해당 방송을 즐겨 보는 고등학생이다. 이 방송은 보스와 직원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패널들이 직접 비판하는 방식에 차별성이 있다. 그런데 보스들의 자아 성찰이라는 취지와 달리, 보스들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패널들도 비판의 날이 무디다. 이런 부분이 공익성을 저해한다고 생각한다. 보스들이 자신의 행동을 성찰할 수 있도록, 패널들이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지적과 비판이 있어야 할 것 같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조**</p>
출연자 섭외 제언	<p>○ 「박원숙의 같이 삼시다」 (1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 5. 19.(월) 2TV (20:30-21:50) - 초대손님으로 배우 안재욱 씨가 출연했다. 안재욱 씨는 음주운전 이력이 있어서, 방송에서 안재욱 씨를 보는 게 불편한 시청자들도 있을 것이다. 방송국에서도 출연자를 선정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의견	세부내용
[라디오]	
선곡 제언	<p>○ 「생생클래식」(1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 5. 20.(화) 1FM (12:00-14:00) - 매일 12시에 해당 방송을 청취하면서, 음악을 들으며 식사하는 행복감에 젖곤 한다. 이날 말러의 교향곡에 선곡되었는데, 식 후 줄린 시간이어서 몰입하기 어려웠고 인내심 있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무거운 교향곡은 식사 시간에 듣기엔 불편하다. 오후 2시 「명연주 명음반」 같은 방송에서 다뤄주면 좋을 것 같고, 해당 방송에선 조금 더 가벼운 곡을 선곡해 주었으면 좋겠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손**</p>